

기획특집

1. 미국 광우병 발생
2. 한우전망

파워인터뷰

“원산지 단속 강화 통해 한우시장 보호에 최선”
최문순 강원도지사

Focus

축산업 허가제, 농가의견 반영 필요

한우로
등잔다!

예로부터 한우는 우리의 특별한 친구였습니다.
지금의 어려운 시기에서도
이를 이겨내기 위한 버팀목으로 한우가 함께 하겠습니다

Contents May 2012

- 02~06 기획특집 1
미국 광우병 발생
- 07~09 Information
한우자조금 이렇게 쓰입니다
- 10 파워인터뷰
최문순 강원도지사
- 11~12 기획특집 2
한우전망
- 13 Information
한우자조금 이렇게 쓰입니다
- 14 Focus
축산업 허가제
- 15 Information
애독자 코너

미국 광우병 파동, 한우업계 비상

미국 광우병 발생으로 국내의 쇠고기 시장 위축이 우려되는 가운데 광우병에 대한 실태와 현재 상황을 알아본다.

발생 개요

지난 4월 24일 미국에서 4번째로 광우병이 발생했다. 미 농무부는 캘리포니아 지역의 농장에서 사육하던 젖소 한 마리에 대한 검사결과 최종적으로 광우병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2003년 말 처음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했을 당시에는 전면 수입 중단 조치가 내려졌던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검역강화 조치만 내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광우병은 무엇인가?

광우병은 소의 뇌에 생기는 신경성 질환으로 공식명칭은 ‘소해면상뇌증(BSE)’이고 소가 이 병에 걸리면 미친 듯이 난폭해지기 때문에 일명 광우병이라고 한다.

광우병이 처음 발생한 곳은 1986년 영국이다. 이 병에 걸린 소는 침을 흘리고 비틀거리는 등 증상을 보이다가 뇌에 스펀지처럼 작은 구멍이 생겨 이내 죽는다. 초식동물인 소에게 먹인 ‘동물성 사료’가 광우병의 원인으로 추측되고 있다.

광우병에 걸린 소고기를 먹은 경우 인간광우병(변형 크로이츠펔트-야콥병, vCJD)이 발병할 수 있다.

광우병과 크로이츠펔트-야콥병을 일으키는 병원체는 바이러스보다 작고 유전자를 가지지 않은 ‘프리온(Prion)’이다. 프리온은 정상적인 단백질이지만 변형된 프리온이 동물이나 인간의 뇌 속에서 축적되면 세포를 파괴하고 조직에 스펀지 구멍을 형성하게 된다. 또한 단백질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가 전염성을 가지고 스스로 복제를 하며, 또 종(種)간의 벽을 넘나들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프리온이 양에게 스크래피라는 질병을, 소에게는 광우병을, 인간에게 변형크로이츠펔트-야콥병(vCJD)을 일으키는데, 이러한 신경질환을 ‘전염성 해면상뇌증’이라 한다.

(참고:네이버)

한우로 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봅시다!

미국 광우병 발생으로 놀란 가슴을 쓸어 내려야 했습니다. 검역강화라는 석연치 않은 대응에 실망했지만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한우소비가 크게 위축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위기는 언제고 다시 찾아올 것입니다. 언제나 용기를 잃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길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우리 한우면 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봅시다.



미국 벌써 4번째 광우병, 정말 안전한가?

2003년 미국 워싱턴 미 최초 광우병 발생

2003년 12월24일 미국 워싱턴주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전면중단했다. 이후 2005년에는 텍사스 주에서, 2006년에는 앨라바마주에서 총 3차례 광우병이 발생했다. 이번 4월24일 또 다시 광우병이 발생함에 따라 미국에서는 총 4차례 광우병이 발생한 나라가 됐다.

2006년 3년만에 미산 쇠고기 수입재개

2006년 10월 한미쇠고기협상에 따라 ‘30개월 미만 뼈 없는 살코기’를 조건으로 수입이 재개 됐다. 하지만 수입된 상자에서 뼈조각이 수차례 발견되면서 국내유통은 정상화되지 못했다. 2007년 뼈조각이 발견된 상자만 반송기로 검역조건을 완화하면서 미산 쇠고기의 국내 유통이 본격화됐다.

2008년 미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

2008년 4월 18일 한미쇠고기 협상을 통해 미산 쇠고기 단계적 수입확대에 합의하면서 우리 정부는 범국민적 저항에 부딪친다. 수개월간 계속된 촛불집회는 정부를 강력히 압박했다.

우리 정부는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와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제를 전면강화하게 된다. 또한, 신문 등에 ‘또 다시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수입을 즉각 중단하겠다’는 내용의 광고까지 게재하면서 성난 민심을 진정시키는데 진땀을 흘렸다.

2012년 4번째 광우병 발생

수입위생조건 개정 후 4년 만에 또 다시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광우병이 발생했다. 정부는 현재까지 수입중단이 아닌 검역강화 조치만을 취하고 있다.



농식품부, 수입중단 대신 검역강화... 축산업계 등 강력 반발

소비자, 축산업계, 정치권 즉각적 소비중단 촉구 농식품부, 안전하다고 판단... 검역강화로 충분

농식품부는 미국 광우병 발생 직후 수입중단이 아닌 검역강화를 대책으로 발표했다.

이에 대해 한우협회를 비롯한 축산업계는 물론, 소비자단체와 여야 정치권 모두가 즉각적 수입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우협회는 25일 성명서를 통해 “미국이 OIE로부터 광우병 위험통제국 지위를 획득하고 있음에도 지속적으로 광우병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전반적으로 광우병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했기 때문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즉각적 수입중단은 물론 현재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미산 쇠고기 전량을 수거,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도 “2008년 미국과 합의한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부칙 6항에 ‘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로 확인될 경우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즉시 수입중단을 선언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새누리당, 통합진보당 등에서도 수입중단으로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하고, 안심시키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즉각 수입 중단하겠다’고 했지만 이후 국회에서 위원회를 구성,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후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개정된 만큼 ‘수입중단’을 하지 않은 것이 약속을 어긴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서규용 농식품부 장관은 4월 26일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현재 모든 정보를 종합해 볼 때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게 결론”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에 발생한 광우병은 비정형으로, 비정형 광우병은 사료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닌 만큼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검역중단이나 수입중단을 할 필요가 없고, 검역강화로도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축산업계 “수입 정당화를 위한 끼워 맞추기식 조사” 비난

광우병 현지 조사단, 국내 수입 미산 쇠고기 안전하다. 결론

총 12일간의 일정으로 미국을 다녀온 광우병 현지조사단의 결론은 ‘국내로 수입하는 미산 쇠고기는 안전하다’였다.

5월 11일 귀국한 조사단은 바로 가축방역협의회를 열어 조사내용을 논의한 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9명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조사단 미국 농무부, 국립수의연구소, 사체 소각시설, 도축 및 가공장 등을 방문해 미국 현장의 광우병 관리 실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광우병 발병 소가 10년 7개월 된 소이며, 이번에 발생한 광우병은 늙은 소에서 주로 나타나는 돌연변이형 ‘비정형’이라는 점과 발병 가축의 사체가 식품이나 사료로 이용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사단은 당초 목표였던 광우병 발생 농장 방문은 농장주의 반대로 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축산업계는 ‘짜고치는 고스톱’이라 표현하면서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한우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광우병 소는 발견됐지만 수입쇠고기는 안전하다’는 비논리를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번 조사는 미산 쇠고기 수입을 정당화하기 위한 방편이었을 뿐이고, 제대로 된 조사없이 예고된 결론만을 되풀이한 조사였다”고 지적했다.

[표 1]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및 관련제도 도입 일자

일자	내용
03. 12. 24	미국 BSE 발생(워싱턴주, 1차)
03. 12. 27	미국산 쇠고기 수입 금지조치
05. 2.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가능성 검토
05. 6. 10	미국 BSE 재발생(텍사스주, 2차)
05. 12. 15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협상 착수 공식 선언
06. 3. 13	미국 BSE 발생(앨라바마주, 3차)
06. 6. 7	미국측 수출작업장 준비사항 미흡으로 수입재개 연기
06. 120	미국측 쇠고기 수입재개 허용(30개월 미만 빠없는 살코기)
06. 11. 24	미국산 쇠고기에서 뱃조각 검출 및 반송조치
06. 12. 1	2차 수입분에서 뱃조각 검출로 반송
06. 12. 6	3차 수입분에서 뱃조각 및 다이옥신 검출
07. 3. 8	뱃조각이 발견된 상자만 반송키로 검역조건 완화
07. 4. 27	미국산 쇠고기 국내유통 재개
07. 5. 26	세계동물보건기구(OIE),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BSE 통제등급 확정
07. 7. 29	미국산 쇠고기에서 척추뼈(특정 위험물질) 발견
07. 8. 1	미국산 쇠고기 검역 중단
07. 8. 27	미국산 쇠고기 검역 재개
07. 10. 5	미국산 쇠고기에서 등뼈(특정 위험물질) 발견으로 검역 중단
08. 4. 11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2차 협상 개시
08. 4. 18	미국산 쇠고기 단계적 수입확대 합의
08. 6. 21	수입위생조건 관련 추가 협상
08. 6. 26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제품 수입위생조건 고시(수입 및 검역재개)
08. 7. 18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실시
08. 12. 22	소 사육단계 이력추적제 시행
09. 6. 22	이력추적제를 유통단계까지 확대 시행
12. 4. 24	미국 BSE 발생(캘리포니아주, 4차), 검역강화 조치
12. 4. 25	미국산 쇠고기 개봉검사 10%까지 확대
12. 4. 26	개봉검사 30%까지 확대
12. 4. 27	개봉검사 50%까지 확대

전국한우협회, 김남배 회장 식발 단식으로 수입중단 촉구

10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 후 단식돌입

김남배 한우협회장은 이 같은 정부의 대응을 규탄하기 위해 지난 10일부터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단식투쟁에 들어갔다. 단식에 앞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김남배 회장은 “미국 광우병 발생으로 전 국민이 쇠고기의 안전성을 믿지 못하게 됐고, 한우농가들은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며 “정부는 즉각 수입을 중단하고 책임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한우협회 김남배 회장은 지난 10일부터 국회의사당 앞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중단을 촉구하며 식발 및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 소비 꺼려진다

미국산 소 광우병 발생에 대한 소비자 반응조사 결과보고

한우자조금은 지난달 30일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 소비자 반응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소비자 10명 중 7명이 미국의 BSE(소해면상뇌증)발생으로 쇠고기 소비를 꺼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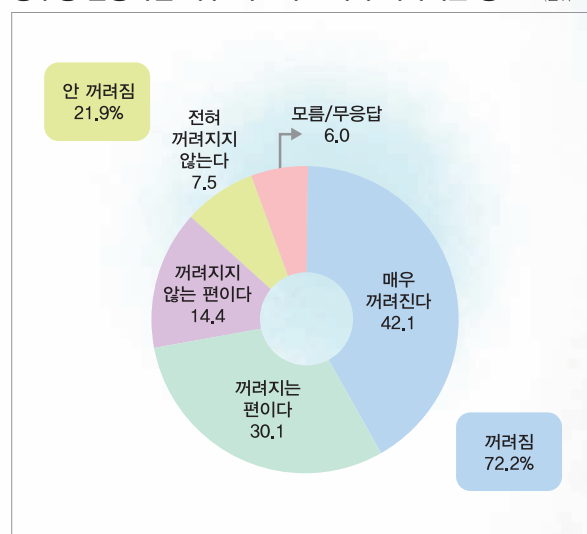
1. 당신은 광우병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

최근 미국산 소의 광우병 발병사실 인지 여부에 대해 물은 결과 10명 중 9명 이상(93.1%)이 '알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모르고 있다'는 6.9%에 불과했다.

이에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발병으로 인해, 쇠고기 먹기가 꺼려지는지 묻는 질문에서 '꺼려진다(매우 꺼려진다 42.1%, 꺼려지는 편 30.1%)'는 응답이 72.2%로 '꺼려지지 않는다(전혀 꺼려지지 않는다 7.5%, 꺼려지지 않는 편 14.4%)'는 응답(21.9%)보다 3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덧붙여 '꺼려진다'는 응답은 여성(77.7%), 30~40대(각각 83.4%, 79.7%), 가정주부(81.9%), 소득수준이 200~299만원(81.4%), 학력이 높을수록(고졸 이상) 상대적으로 높았다.

광우병 발병사실 이후 쇠고기 소비가 꺼려지는 정도 (단위 : %)



2. 앞으로 쇠고기 소비는 어떻게 할 것인가?

광우병으로 인해 쇠고기 소비를 줄인다면, 어떤 쇠고기를 줄일 것인지에 대해 물어본 결과, 미국산 쇠고기가 80.7%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호주산 쇠고기(24.6%)로 나타났다. 반면 한우고기를 줄이겠다는 응답은 5.2%에 불과했다.

소비를 줄일 의향이 있는 쇠고기 종류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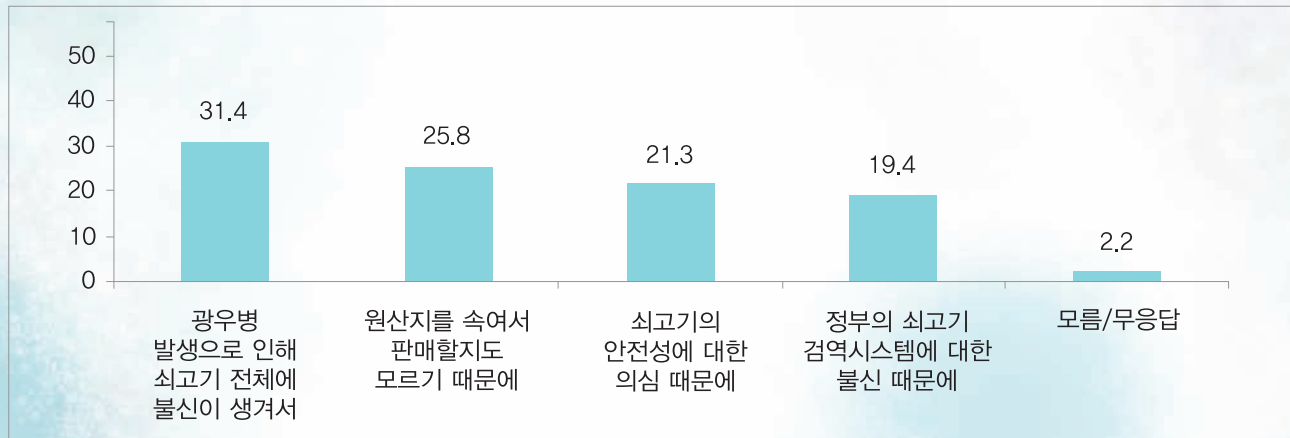


3. 왜 쇠고기 소비를 줄일까?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발병 이후 쇠고기 소비를 줄이는 이유를 물어본 결과 ‘광우병 발생으로 인해 쇠고기 전체에 불신이 생겨서’가 31.4%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원산지를 숙여서 판매할지도 모르기 때문에’(25.8%),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의심 때문에’(21.3%)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광우병 발병 이후 쇠고기의 소비를 줄이는 이유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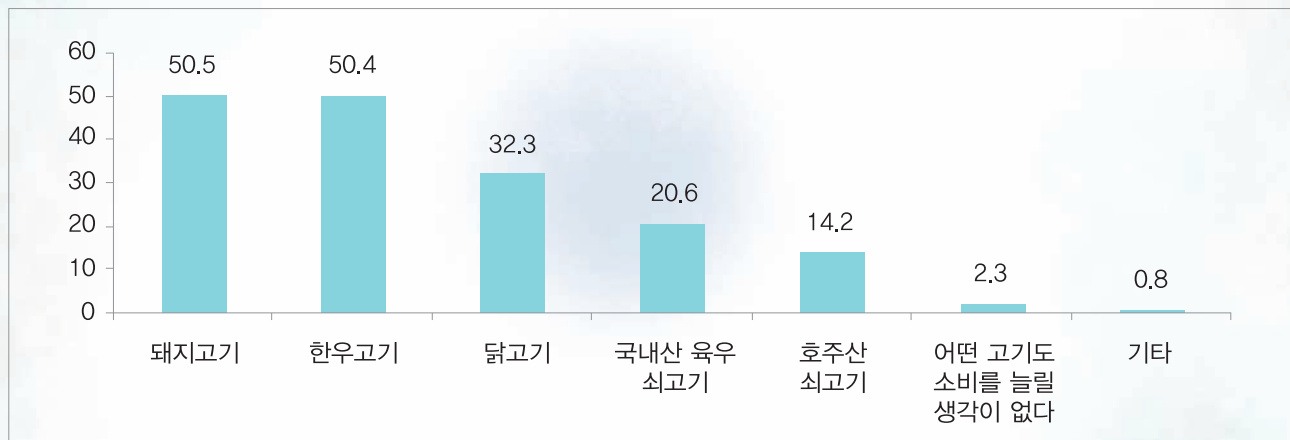


4. 어떤 고기로 대체할 것인가?

미국산 쇠고기의 소비를 줄이는 대신 그 대안으로 어떤 고기의 소비를 늘릴 것인지를 물어본 결과, 돼지고기(50.5%)와 한우(50.4%)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닭고기(32.3%), 국산 육우(20.6%)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미국산 쇠고기를 대체할 의향이 있는 고기 종류

(단위 : %)



반면 한우가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를 물어본 결과, 10명 중 6명 이상(61%)이 ‘알고 있다’고 응답했고, ‘모르고 있다’는 39%로 나타나 한우의 안전성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성기 위원장은 “긴급소비자 조사결과 쇠고기 소비가 꺼려진다는 답변이 많았고, 쇠고기에 대한 불신과 둔갑판매에 대한 우려가 많은 만큼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다”며 “소비가 위축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소비촉진행사에 나서는 것과 동시에 한우가 BSE로부터 안전하다는 사실을 널리 알리는 등 한우의 안전성에 대한 홍보에 초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Information_한우자조금 이렇게 쓰입니다

한우 먹으면서 야구 응원하세요~



한우 시식회 및 한우 서포터즈 프로모션 개최

16일, 문학야구장에서 한우 불고기 1만인 분 무료 시식회 열어
한우서포터즈 500명 경기 초대, 이벤트 통해 한우 세트 증정

한우자조금은 한우 소비 촉진과 안전성 홍보의 일환으로 지난 16일 인천 문학경기장에서 한우 시식회 및 한우 서포터즈 프로모션을 개최했다. 또한 SK선수단을 한우 서포터즈로 위촉했다. 지난 16일 문학경기장 매표소 앞과 외야 그린존에 한우 시식회를 진행, 한우 불고기와 등심 등 1만인 분을 무료로 제공했다. 또 공수교대 시간에는 전광판을 통해 퀴즈쇼를 진행하고 정답을 맞춘 관중에게 꾸민 한우모듬선물세트를 증정하는 이벤트를 펼쳤다. 또한 강성기 관리위원장은 경기 시작을 알리는 시구를 진행했다.

한편 경기 시작에 앞서 한우 서포터즈 위촉식도 가졌다. 최근 승승장구하며 상위권을 달리고 있는 SK와이브스 선수단을 서포터즈로 위촉했다. 이번 한우 시식회는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진행했다.

또한 행사와 함께 한우자조금은 한우 블로그를 통해 한우 서포터즈 초청 이벤트를 개최했다. 블로그 이벤트 게시글에 댓글로 한우 서포터즈로서의 포부와 한우 사랑에 대한 자유 제안을 남긴 500명을 선정해, 16일 경기에 초대했다. 강 위원장은 “이번 이벤트를 통해 한우의 우수한 맛과 품질이 널리 알려져 많은 소비자들로부터 사랑 받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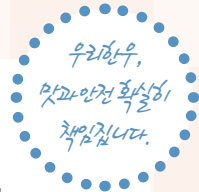


SK선수단을 한우 서포터즈로 위촉했다.



경기시작전 강성기 위원장이 시구를, 한우캐릭터가 시타 했다.

귀농귀촌 페스티벌, 한우암소 판매 및 시식회 개최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발생의 여파가 한우소비하락까지 확산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우자조금과 한우협회는 다양한 소비촉진행사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한우자조금과 한우협회는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서울 SETEC에서 개최한 귀농귀촌 페스티벌에 참여해 한우시식회와 한우암소할인판매를 진행했다.

안전한 한우를 홍보하고자 역점을 둔 이번 행사에서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우불고기 시식회와 함께 다양한 이벤트를 진

행하며 한우의 안전성을 홍보했다. 또한 한우 부위별 고기를 전시해 소비자에게 다양한 한우의 정보를 알리며, 소비촉진에 기여하고자 한우암소할인판매를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

한편 이번 페스티벌은 공중과 생방송으로 방영되어 한우협회 임관빈 부회장이 인터뷰를 통해 “미국 광우병 발생으로 쇠고기에 대한 불안이 높아진 가운데 한우고기까지 판매가 위축되어 한우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한우는 농가의 정성과 과학적인 사육시스템을 통해 철저히 출하된다. 또한 쇠고기이력제로 관리되므로 100% 안전하다고 자부하므로 우리한우를 더욱 사랑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청계천에서 한우 등심 및 불고기 시식회 개최

한우자조금은 지난달 29일 서울 청계천 광통교에서 “한우 안심하고 드세요”라는 주제로 무료 시식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한우자조금은 한우 등심 및 불고기 약 3,000인분을 준비하고 주말 봄나들이에 나선 일반 시민과 외국인 관광객에게 제공하여 높은 호응을 얻었으며 언론의 관심도 커 공중파 방송 및 주요 일간지 기자들의 열띤 취재 경쟁도 있었다.

미국산 쇠고기에서 광우병 소가 발견, 소비자의 불안감 확대로 한우까지 소비하락을 유도할 수 있다고 우려되는 상황에서 한우자조금은 발빠르게 소비촉진행사의 일환으로 이번행사를 개최해 안전한 우리한우의 우수성을 홍보했다. 한우자조금 강성기 위원장은 시민들에게 “한우는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할 뿐만 아니라 위생적으로 철저하게 사육되고 있으며 ‘쇠고기 이력제’를 통해 한 마리, 한 마리 관리되고 있어 미국산 쇠고기와는 비교 대상이 아니므로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한우를 드실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산 · 호주산 쇠고기가 한우보다 3~5배 성인병 유발한다!

실험결과, 한우 근내지방도 높을수록 성인병 위험 감소



최창본 교수

근내지방도 높을수록 중성지방 감소

마블링이 좋은 한우고기일수록 수입쇠고기보다 성인병 위험이 훨씬 적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우자조금의 지원으로 이번 연구를 진행한 영남대 생명공학부 최창본 교수는 지난 15일에 미국산이나 호주산 쇠고기보다 지방함량이 5배 높은 한우고기를 먹더라도 혈액 내의 중성지방 함량은 오히려 3분의 1이하로 감소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최교수는 근내지방도 1(3등급), 3(2등급), 5(1등급), 7(1+등급), 9(1++등급)의 한우고기와 미국산, 호주산 쇠고기를 각각 실험용 쥐에 급여한 뒤 혈액을 분석한 결과 한우고기의 근내 지방도가 높을수록 쥐의 혈액 내 중성지방 함량은 미국산이나 호주산 쇠고기와 비교해 현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을 밝혔다.

한우, 성인병 유발 위험 훨씬 적다

이번 실험은 근내지방도가 각기 다른 한우고기와 미국산, 호주산 쇠고기 3샘플씩을 이용해 샘플당 3마리의 쥐에 하루 총 사료섭취량의 10%에 해당하는 분량을 4주동안 쇠고기로 대체했다. 근내지방도 1, 3, 5, 7, 9의 한우고기 등심 내 지방함량은 평균 3.5%, 11.9%, 13.2%, 17%, 23.5%이며, 미국산 쇠고기는 8.4%, 호주산 쇠고기는 4.5%였다.

4주후 고기를 섭취한 쥐의 혈액 내 중성지방은 한우고기 49.4, 23.6, 16.9, 12.4, 19.6mg/dl, 미국산 쇠고기는 36.9mg/dl, 호주산 쇠고기는 50.8mg/dl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근내지방도 7인 1+등급의 한우고기를 섭취한 쥐의 혈액 내 중성지방 함량은 호주산 쇠고기에 비해 5분의 1, 미국산 쇠고기보다는 3분의 1에 불과했다. 이번 실험을 진행한 최교수는 “근내지방도가 높은 한우고기를 섭취한 쥐의 하루 지방섭취량이 미국산이나 호주산 쇠고기를 섭취한 쥐에 비해 3~5배 가량 높았지만 한우고기의 근내지방함량이 높을수록 이를 섭취한 쥐의 혈액 내 중성지방 함량은 반비례하여 오히려 낮아진 결과를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한우고기의 근내지방에는 올레인산을 비롯해 단가불포화지방산이 미국산이나 호주산 쇠고기에 비해 더 많이 함유되어 동맥경화나 고혈압 등 심혈관계 성인병 유발 위험이 훨씬 적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위 결과는 오는 6월 28~29일 충남대에서 열리는 ‘한국동물자원과학회 종합 심포지엄 및 학술발표회’에서 소개될 예정이며, 위 실험 결과를 토대로 임상실험을 진행해 한우고기와 수입산 쇠고기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입증해 한우의 우수성을 알리는 토대를 마련할 방침이다.

품질차별화, 직거래 활성화 등 공격적 전략 전개 원산지 단속 강화 통해 한우시장 보호에 최선

MBC 사장과 18대 국회의원을 거쳐 작년 4월 강원도지사에 당선된 최문순 강원도지사. 최 도지사에게 광우병과 FTA로 위협을 받고 있는 한우산업의 안정화방안에 들어봤다.



최문순 강원도지사

Q 광우병 발생관련, 한우농가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조치는?

A 원산지 표시제, 쇠고기 이력제 단속강화

광우병 발생으로 소비자를 포함한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다. 강원도는 미국산을 비롯한 수입쇠고기가 한우고기로 둔갑 판매되지 않도록 원산지 표시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낮은 가격에 쇠고기를 판매하는 단체급식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문화로 인해 한우가격이 하락 시 한우협회, 지역축협 등 유관기관(단체)과 함께 한우소비 촉진행사도 계획하고 있다.

한편 한우고기는 광우병과 무관함에도 광우병에 대한 언론 노출이 많을 경우 오히려 한우고기 소비를 기피할 수 있다는, 지난 2003년 경험을 바탕으로 광우병에 대한 언론 노출을 극도로 조심스럽게 대응하고 있다.

Q 수입육과의 경쟁을 위한 강원도 한우산업의 대응 전략은?

A 다양한 유통전략으로 수입육과 대응

자체분석 결과 국내산 쇠고기점유율 중 한우는 '05년 31.4%에서 '11년 35.4%로 4% 증가한 반면, 국내산 육우 및 젓소는 '05년 18.5%에서 '11년 7%로 11.5% 감소했다. 국내

산쇠고기 점유율 감소는 육우와 젓소고기의 감소에서 비롯되었다고 판단된다. 이는 한우의 품질과 안전성을 신뢰하는 소비층이 조금씩 늘고 있다는 점과 원산지 단속 강화와 이력제 추진 등 정책의 효과, 외국의 광우병과 촛불시위 효과로 인한 수입육에 대한 거부반응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됐다고 판단된다. 앞으로 가격경쟁력이 있는 수입쇠고기와 한우고기 간에 경쟁은 더욱 치열해 질것이 분명하므로 강원도는 유통투명화, 직거래 활성화 등 다양한 유통전략으로 대응할 것이다.

Q 한우산업을 위한 강원도 차원의 지원책은 무엇인가?

A 안전성 강화, 생산비절감, 환경개선, 차별화, 유통개선 등 FTA 대응책 마련

'12.1월 44.6%를 차지했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이 이번 광우병 사태를 겪으며 5월(상순) 26.7%로 급감했다. 이는 먹을거리에 대한 안전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결과다. 강원도에서는 광우병 사태 뿐만 아니라 한·EU, 한·미 FTA대응책을 마련했다. 크게 보면 안전성 강화, 생산비절감, 환경개선, 차별화, 유통개선으로 보면 된다. 안전성 강화를 위해 생산단계의 HACCP인증 및 무항생제인증을 확대하고, 생산비절감을 위해 조사료생산 확대 및 노동시간을 절감하고, 사육환경개선을 위해 자동화 및 시설현대화, 강원한우 차별화·특성화를 위한 강원도 보증씨수소 선발 및 보급, 직거래판매장 육성 및 활성화 지원 등의 지원책을 마련해 놓고 있다.

하반기 큰 암소 공급물량 큰 폭 증가 전망

5~6월 한우 송아지 출하물량은 수급 불균형 발생

송아지가격 5~6월 상승, 7월 하락 전망

농림수산식품부는 '10년말 구제역 발생에 따른 한우정액 일시 공급 중단의 영향으로 금년 5월부터 단기적으로 한우 송아지 수급 불균형이 초래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11년 1월부터 2개월 동안 정액 공급을 중단한 영향으로 '11년 10월부터 11월까지 태어난 송아지는 7만4천마리(이력관리시스템 등록 기준)로 전년 동기(10만 6천마리)보다 29.9%가 감소해 출하시점(7개월령 기준)인 올해 5~6월에는 출하물량 부족으로 송아지가격 상승이 전망된다.

반면 '11년 3월 정액 공급이 재개된 이후 '11년 3월부터 5월까지 정액판매량이 증가함에 따라 '11년 12월부터 '12년 2월까지 태어난 송아지는 23만6천마리로 전년동기(20만2천마리)보다 16.7% 증가하여 출하시점(7개월령 기준)인 금년 7월 이후에는 출하물량 증가로 송아지 가격 하락이 전망된다. 이에 따라 송아지의 가격안정을 위해 입식농가는 출하물량을 고려하여 구입 시기 조절이 필요하다.

큰 암소 추석 이전 조기 출하 필요

한편 금년 하반기에는 한우 큰 암소 도축물량이 예년에 비해 크게 증가될 것에 대비하여 추석 이전에 조기 출하가 필요하다. 연초부터 한우 큰 암소 도축비율이 증가해 한우고기 공급량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런 추세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1년	2012년
한우암소 도축두수(1~4월)	74.6천두	120.8천두(61.8% 증가)
전체 소 도축두수	233.8천두	313.1천두(33.9% 증가)
한우암소 평균 도축비율(1~4월)	38.7%	45.5%

또한 한우암소감축장려금지원사업을 통해 출하될 젊은 암소의 상당 물량은 추석 이후에 출하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어, 암소 출하물량과 겹칠 경우 하반기 암소 가격이 크게 하락할 우려가 있다. (한우암소감축장려금지원사업 지원대상 큰 암소는 2산 이하, 45개월령 이하로 장려금 지원 대상 큰 암소의 추석이후 출하 예정물량은 7만1천마리로 전망된다.)

이에 한우농가는 가급적 추석 이전에 큰 암소의 출하물량을 확대하여 추석 이후의 한우가격과 수급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

한우자조금, 소값안정화 위한 할인행사 실시

한우자조금은 소값 안정화 및 한우 소비감소에 대응하고자 1,500여개의 농협매장을 통해 한우사랑 고객감사 할인행사가 지난 11일부터 31일까지 진행하고 있다. 특히 불고기는 19,800원/1kg으로 할인하고 암소를 중심으로 각 매장별로 최소 10% 이상 할인해 한우 소비촉진을 유도한다.

한우 수급 동향과 전망



3월 한우 사육두수 증가세 여전, 6월에도 전년보다 증가 전망

3월 한육우 사육두수는 294만 두로 전년 동기대비 5만 9천 두(2.0%) 증가하였다. 그 중 한우 사육 두수는 282만 두(전년대비 3.1% 증가)를 차지했다(통계청 발표). 소 이력추적제 자료상의 한육우 사육두수 또한 전년 3월보다 약 2% 증가하였다. 계절적으로 송아지 생산두수가 증가하여 6월 한우 사육두수는 3월보다 증가하고, 전년 동월보다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1~4월 한우 등급판정두수 38.5% 증가, 6월 도축 전년보다 증가, 쇠고기 수입량 감소 전망

할인행사에 따른 국내산 쇠고기 소비 증가로 1~4월 한우 등급판정두수는 전년 동기기간보다 38.5% 증가한 26만 7천 두였다. 암소두수는 전년대비 62.4% 증가한 12만 1천 두, 거세우는 11.5% 증가한 12만 1천 두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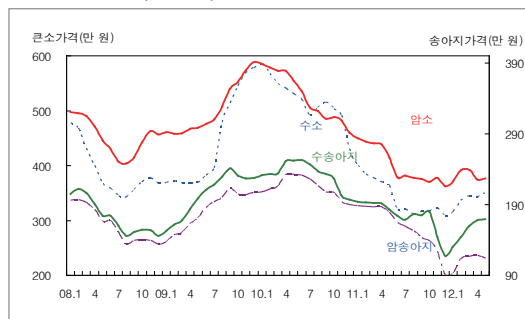
한우 사육두수 증가로 6월 등급판정두수는 전년(5만 9천 두)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4월 24일 미국에서 BSE가 발생하여 미국산 쇠고기 소비의향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게다가 수입육 재고가 전년보다 크게 증가하여 6월 쇠고기 수입량은 전년 동월(2만 5천 톤)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비수기인 6월 1등급 도매가격 5월보다 하락 전망

지난 2011년 말 이후 소 산지가격은 하락세를 멈추고 상승세로 전환되었으나, 5월 들어서는 4월보다 다소 낮게 형성되고 있다. 번식의향 감소로 암송아지 가격(4~5개월령 기준)은 110만 원대에서 형성되고 있으며, 수송아지 가격은 160만원을 상회하고 있다. 향후 암송아지 가격 약세 기조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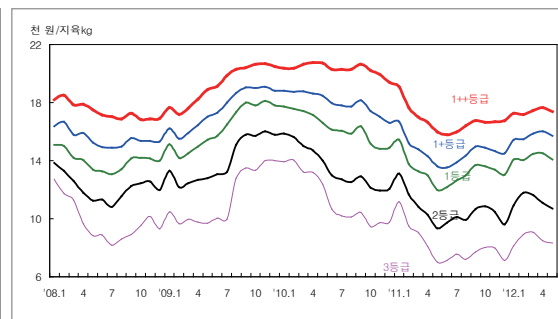
대형 유통업체 할인행사로 5월 한우 1등급 지육 도매가격(13,959원/kg)은 전년(11,994원)보다 16.4% 상승했으나, 평년(14,263원)보다는 2.1% 하락한 수준이다. 계절적 수요 감소로 6월 한우 1등급 도매가격은 5월보다 하락한 12,500~13,500원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전망치는 대형 유통업체의 할인행사와 암소 감축 정도에 따라 가격 등락폭이 좌우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우 산지가격(우시장) 변화



자료 : 농협중앙회

등급별 도매시장 가격 동향



자료 : 축산물품질평가원



한우와 함께하는 봄맞이 지역 축제

따뜻한 봄을 맞아 각 지역별 축제가 활발히 펼쳐졌다.
이에 한우자조금과 한우협회는 한우시식회 및 할인행사를
진행해 관람객에게 한우를 홍보했다.



04.06 왕인문화축제(전남 영암)



04.13~15 논산말기축제(충남 논산)



04.28~29 윤봉길문화축제(충남 예산)



05.04~05 장보고축제(전남 완도)



05.05~06 농심체험한마당(충남 당진)



05.06 칠보리문화축제(전남 영광)



05.10~13 양평산나물한우축제(경기 양평)

축산업 허가제, 농가의견 반영 필요

‘고비용’, ‘비현실적’ 한우농가 반발 불러

축산업 허가제가 소, 돼지 등 축종별 가축사육업에 대해 2013년부터 점진적으로 도입된다. 한우 사육농장에 대해서는 전업규모(50두)의 2배 수준의 사육농가인 100두 이상 농가를 대상으로 2013년 2월23일부터 도입된다. 2014년에는 전업농(50두 이상) 대상, 2015년에는 준전업농(30두 이상), 2016년 소규모 농가(50㎡ 이상) 순으로 확대된다.

허가기준안에 따르면 농장에서는 차량이 출입하는 입구에 터널식 또는 고정식 소독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단일 출입로를 확보하고 농장입구에 사료 및 물품반입 창고를 설치해야 한다. 또 급수 시 음용수 기준의 식수공급이 가능해야 하며, 분뇨에 대해서는 축사 및 퇴비사에 유실방지를 위한 방지턱을 마련해야 한다.

교육시간은 신규 진입농가 20시간(3일), 허가대상농가 10시간(2일), 등록대상농가 6시간(1일)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별직의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었던 현행 등록제보다 개정 등록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완화되지만 허가제의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더욱 강화된다.

축산업 허가제에 대한 전국 순회 설명회에서는 허가제에 대한 한우농가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정부가 축산업을 규제의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허가제로 인해 축산업이 심각하게 위축될 것이라는 주장과 함께 대부분의 허가기준이 농장 개보수 수준에서 벗어나 증개축 및 소독설비에만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데, 사료값 인상, 한우가격 하락으로 가뜩이나 적자에 허덕이는 농가들이 대거 산업에서 이탈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설명회에 참석한 한우농가들은 “건축법 규제에 창고 등 추가로 건설이 어려운데, 불법을 자행하라는 것인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음용수 기준에 대해서는 “생활용수 수준으로 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비용 문제 등 현실적 지원대책부터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소독시설에 대해서도 “비용대비 효율적인 이동식 분무기도 허가기준에 포함시켜 달라”고 건의했다. 교육의 경우 “한우협회 또는 마이스터, 축산물HACCP 기준원 등 유관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지역별로는 허가제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하는가 하면 한우농가들은 허가제를 시행하기에 앞서 전반적인 농가 의견을 수렴, 방역시설 지원 등 정책지원 방안이 마련된 후 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05.11 축산업허가제설명회(충남)



05.14 축산업허가제설명회(강원)



05.15 축산업허가제설명회(전북)

한우소식 이모저모

한우협회 6대 김남배 회장 취임

부회장에는 단독후보 김영자씨 과반수 동의로 선출



전국한우협회는 지난 달 30일 안성 농협연수원에서 대의원회를 개최하고, 제 6대 회장에 김남배 후보가 당선됐다. 또한 김남배 부회장의 사퇴에 따라 공석이 된

부회장 선거에서는 김영자 후보가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 당선됐다. 이날 회장 선거에는 기호 1번 이근수, 기호 2번 김남배, 기호 3번 조위필 후보가 나와 경선을 치러 김남배 후보가 1위를 차지했으나 과반수를 얻지 못해 이근수 후보와 결선투표를 실시해 김남배 후보가 한우협회장으로 당선됐다.

이번에 당선된 김남배 신임회장은 한우협회 장흥군지부장, 한우협회 광주전남도지회장을 역임하고, 지난 3월 임원선거에서 협회 부회장으로 선출되어 활동하다가故 정호영 회장의 급작스런 유고에 따른 한우협회장 선거에 출마하여 회장직에 올랐다.

한우협회장 선거에 이어 바로 생산자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 6대 회장 취임식을 가졌다. 김남배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지해준 대의원들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초심을 잃지 않고 낮은 자세로 최선을 다할 것이다. 선거로 분열된 회원농가들의 마음을 모두 모아 한우산업과 농가들의 권익보호라는 대의명분 아래 하나로 똘똘 뭉치자”면서 “어려운 한우산업을 극복하기 위해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는 한편 고급육 수출 활로 개척으로 한우산업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는 등 한우산업과 농가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 FTA 농업피해 대책자금에 17만여 한우농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50마리 미만의 한우 부업농가에게도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 학계·정계·소비자단체·생산자단체가 참여하는 상시 한우정책 TF팀을 구성해 한우농가들이 안정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에 3명의 부회장을 유통·수출·소비, 가축개량, 축산정책 등 3개 분야로 역할 분담을 통해 농림수산물부와 협조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남배 신임 회장은 1998년 국립순천농림전문학교를 졸업한 뒤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 연달아 법학과('96년)와 일본학과('02년), 농학과('06년) 학사 과정을 수료했다.

애독자 코너

농림수산물부는 '10년말 구제역 발생에 따른 한우정액 일시 중단의 영향으로 한우 송아지 수급 불균형이 초래되어 5월에는 가격이 상승하지만 7월부터는 출하물량 증가로 송아지 가격이 하락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한편 **금년 하반기에는 큰 암소 도축물량이 예년에 비해 크게 증가될 것에 대비하여 00이전에 조기 출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우암소감축장려금지원사업을 통해 출하될 젊은 암소도 이 시기에 겹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한우농가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합니다. 이 시기는 언제일까요? 한우자조금 소식지 5월호 11페이지를 참고하시고 전국한우협회, 한우자조금 홈페이지에 올려주세요. 우편엽서 접수도 가능하오니 아래 접수처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반드시 전화번호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을 게재하시는 분 중 추첨을 통해 5만원 상당의 송아지 설사예방약을 드립니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홈페이지
www.hanwooboard.or.kr

전국한우협회 홈페이지
www.ihanwoo.org

우편엽서 접수처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21-19 제2축산회관 2층 전국한우협회 한우자조금소식지 담당자 앞

당첨자

4월호 정답자분들! 축하드립니다!

배기남(충남 서산시), 이진태(경북 영주시), 송원영(서울 관악구), 심우엽(충남 공주시), 박상우(강원 홍천군), 김영호(전북 고창군)

인증점 소개

고깃집 수림원 | 전화 : 031-967-2355
주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1동 148-30

고깃집 수림원은 20년이 넘는 전통에서 우러나오는 한우의 참맛으로 미식가들 사이에 맛집으로 정평이 나 있다. 1등급 이상의 한우고기만을 엄선하여 저온으로 숙성시켜 내놓은 생고기는 1주일에 고기가 들어오는 날에만 예약을 해야 먹을 수 있을 정도이다. 수냉식 참숯 석쇠를 사용해 고기가 타지 않고 은은하게 구워져 쫄깃한 한우 맛을 그대로 느낄 수 있다. 여기에 주변의 수려한 경관이 운치를 돋우고, 식당 뒤편으로 어린이 놀이터와 산책로가 있어 나들이 겸 외식장소를 적격이다.



한우자조금
등록번호 114-62-61108

비매품 제8권 제29호 통권 제79호 발행일 2012년 5월 25일 발행인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_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28-60 커피아회관 3층 TEL. (02)522-4292~3 FAX. (02)522-3605 발행처 전국한우협회_서울시 서초구 서초1동 1621-19 제2축산회관 2층 TEL. (02)525-1053 FAX. (02)525-1054 편집·인쇄 탐미디어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실린 기사와 사진, 그림 등은 무단으로 복제·전재할 수 없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발생에 따른 대응과 한우 소비촉진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한우의 안전성을 소비자에게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 소비자의 불안감 해소와 한우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신문 광고 등을 적극 시행하겠습니다.

■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발생에 따른 소비자 동향을 수시로 모니터링하여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 한우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 한우 소비촉진 분위기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 ‘금요일은 한우먹는 날’ 캠페인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 암소물량 줄이기에 주력하겠습니다.

- 암소위주의 할인 판매행사와 소비촉진 행사시 암소 위주의 판매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 한우 소비촉진을 위한 대대적인 할인행사를 진행하겠습니다.

- 농·축협 및 대형 유통업체와 전국적인 할인행사로 한우값 안정과 소비촉진에 기여하겠습니다.